철학사
57 헤겔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자, 그럼 이제 헤겔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험을 치르셨으니 헤겔을 이미 읽으셨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가 아니죠. 하지만 헤겔의 어휘와 문체를 이해하고 나면 생각보다 읽기 쉽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처음에는 좀 장황 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

브렌트 블랜차드가 쓴 『철학적 문체에 대하여』라는 작은 책이 있는데, 철학자들의 문학적 문체(만약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에 관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조너선 스위프트나 조지 버나드 쇼 같은 사람들은 앤드레 소렁이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말할 것이고, 세기 전환기에 활동했던 영국의 관념론자 F.H. 브래들리는 살해당했다고 말할 것이며, 그의 동료였던 보젠켓은 죽었다고 말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칸트는 그의 필멸의 존재가 소멸했다고 말할 것이고, 헤겔은 무한의 유한한 규정이 그 자체의 부정에 의해 더욱 확정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었다면, 안드레 소렁이 죽었다는 마지막 말에서 헤겔의 변증법을 포착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무한을 유한하게 규정하는 것. 네, 무한, 절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존재.

자,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자면, 그것은 바로 개인입니다. 좋습니다 ,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자기 부정에 의해 더욱 확정되었다. 그렇다, 그의 존재는 부정되었고, 이는 그 사건, 그 역사적 시기에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죽었다는 말은 온갖 함축적인 의미를 수반하게 된다.

헤겔은 단순히 이 사람이 살해당했다는 생각을 훨씬 더 큰 맥락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문학적 스타일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가 다루는 철학적 틀이 그의 문체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그럼 헤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독일 관념론자들에 대해 언급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 방금 시험을 치렀으니 헤겔을 벌써 읽었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비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독일 관념론자들에 대해 이야기했던 내용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 보죠. 저는 우리가 새로운 형이상학, 즉 모든 개별 사건과 실체가 전체론적 과정의 표현인 절대 관념론을 배우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자의식은 신의 자의식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 순간에 불과합니다. 신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완전한 자유와 자기표현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헤겔은 나폴레옹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동시대 인물이었다. 그는 나폴레옹을 역사 속 한 문화 정신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움직임을 개인적이고 독특하면서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방식으로 구현한 인물로 보았다. 과거의 모든 반대 세력을 극복한 인물로 말이다.

창조적 정신의 주권. 이것은 분명히 기계론적인 인과관계 모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과정 모델입니다.

나폴레옹의 역사적 위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헤겔은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그 개인, 그 사건으로 수렴하고, 그 시점부터 모든 역사가 펼쳐진다고 말입니다. 역사는 나폴레옹을 탄생시켰고, 나폴레옹이라는 사건은 미래의 모든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폴레옹을 세계사적 인물이라고 부릅니다. 세계사적 인물. 과거가 집약된 인물이자 미래가 깃든 인물 말입니다.

과정이라는 개념, 유기적 상호 연관성, 그리고 수사법 그 자체는 생물학적 수사법입니다. 따라서 형이상학적 일원론, 절대적 이상주의, 일원론적 이상주의, 모든 것이 정신의 작용이며 자유가 사방에서 폭발적으로 분출한다는 것은 헤겔의 사상, 즉 낭만주의적 관점과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의 형이상학의 한 측면이지만, 20세기 초반보다는 20세기 후반, 아마도 2/3 정도에 이르러서야 더 높이 평가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1900년부터 1930~40년 사이에 쓰인 헤겔 관련 저서들을 살펴보면, 그가 낭만주의자라기보다는 합리주의자로 묘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18세기적인 의미의 낭만주의자는 결코 아닙니다. 그가 합리주의자로 여겨지는 이유는 그가 이성적인 것, 아니, 실재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곧 실재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신이 합리적으로 필연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현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는 매우 합리주의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통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는 그 말을 통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는 현실이란 창조적 발현이며,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적 발현, 아, 철자도 제대로 못 썼네요. 정신과 영혼의 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재 입니다. 그러므로 실재하는 모든 것이 정신의 창조적 발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실재는 정신만큼이나 이성적이라는 뜻입니다. 실재는 이성적입니다.

이성이 실재 한다는 것은 창조적 사고와 창조적 활동을 구조화하는 사고의 범주들이 곧 현실의 범주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바와 같습니다. 사고의 범주들이 곧 현실의 범주라는 것이죠. 잠시 후 그의 논리를 살펴보면, 그가 칸트의 범주론을 떠올리게 하는 온갖 종류의 논리적 범주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칸트는 사유의 범주는 순전히 주관적인 것이며, 단지 사유의 범주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겔은 그런 말은 집어치우고, 사유의 범주는 현실의 범주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독일어로 말했을 뿐이죠. 헤겔은 어떻게 칸트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으로 나아갔을까요? 그건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사유의 범주는 현실의 범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헤겔의 출발점은 역사의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자유롭게 발현되는 창조성을 지닌, 모든 것을 포괄하는 창조적 정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형이상학에서 두 번째 주제이지만, 세 번째 주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어떤 면에서 초기 그리스 사상의 메아리입니다. 기원전 400년이나 500년경, 혹은 지난 8월과 9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도 헤시오도스, 어느 정도는 호메로스,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로스와 같은 그리스 시인들에게서 우주 전체가 질서정연한 통일체이며, 정의로운 사회, 질서 있는 사회, 도시 국가가 그 소우주이고, 정의롭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그보다 더 작은 소우주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개인과 역사적 국가, 그리고 우주 전체는 모두 동일한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질서 있는 통일체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로고스 개념과 플라톤이 발전시킨 형상론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헤겔도 마찬가지로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헤겔은 개인을 전체의 축소판으로 봅니다.

당신은 절대 정신의 축소판입니다. 당신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여기서 그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국민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국민국가는 전체를 축소한 또 다른 축소판이며, 역사 속에서 작용하는 창조적 정신의 발현입니다.

이해되시죠 ? 그래서 그의 대표작인 『정신 현상학』에 이르면, 독일어로는 'Geist'라고 하는데, 이는 고대 앵글로색슨어 '유령'을 뜻하는 'Geist'처럼 '정신'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겁니다. 『정신 현상학』에서 그는 먼저 자아 에 대해 이야기하고 , 그 다음 사회, 그리고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가 하고 있는 것은 마치 자기의식의 변증법적 전개를 추적하는 정신적 방황을 펼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단지 자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지, 사회와 사회적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역사와 역사의 전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 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영역에서도, 그리고 전체, 즉 개인, 사회, 우주 전체 에서 일어나는 일과 어느 정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인 주인과 하인의 관계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 '맞아, 이건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관계 속에서 자각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 그렇죠 ? 하지만 국가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지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해되시죠 ? 이 모든 과정은 사물의 변증법적 전개 속에서 절대자가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고대 그리스인들의 비유, 특히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라는 측면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에서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방식은 언제나 합리적입니다.

알 겠어요? 합리적으로 질서정연하죠. 왜냐하면 현실은 합리적이니까요. 그리고 역사의 모든 과정은 그가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의미에서 합리적입니다.

네. 그의 합리성이란 무엇일까요? 음, 그것은 당연히 그의 새로운 형이상학에서 새로운 방법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새로운 방법론으로 말이죠.

지난 한두 세기 동안 우리가 목격해 온 것은 실증적 형이상학, 실증적 지식, 연역적 추론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삼단논법적이고 수학적인 추론 방식. 자명한 진리나 경험적 일반화에서 출발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물론, 흄과 칸트 모두가 그토록 비판했던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증명 중심적 형이상학입니다.

사실상 헤겔은 그들의 비판에 동의합니다. 그는 그런 종류의 증명적인 형이상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가 생각하는 이성은 연역적 증명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생각하는 이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고', 즉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뭔가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18세기에는 이성이란 명제와 판단을 형성하는 관념들을 의미했고, 이러한 관념들은 삼단논법으로 더욱 발전되었죠. 그러니까 데카르트 이후 전통에서 사고의 단위는 사실상 명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간이 되는 범주들을 찾으려 노력했다 . 헤겔과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헤겔은 사유의 초점을 명제가 아니라 이성에 둔다는 점이다.

개념 . 그 차이는 꽤 큽니다 .

아시다시피, 명제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어떤 명제가 논리적으로 무엇을 함축하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다른 명제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개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개념 간의 관계를 탐구하려고 합니다.

생각이 이리저리 흘러가다 보면 하나의 개념이 또 다른 개념을 낳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리저리 흘러간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생각이 항상 직선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헤매는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개념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시행착오와 같은 과정이죠. 그래서 존재의 개념이든, 정의의 개념이든, 특정한 개념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즉,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 직접적인 자각. 당신은 어떤 개념을 직접적으로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처음에 세운 개념은 성찰 과정을 거치면서 다듬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맞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끼며 다른 측면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인식뿐 아니라, 이러한 성찰적 탐색을 통해 더욱 명확하고 풍부한 결과, 즉 더욱 명확한 개념화에 도달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훨씬 더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어떤가요? 대학 생활 내내 이루어지는 성찰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교육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 이전에는 접해보지 못했던 인문학 교육이라는 개념을 마주하게 되고, 실용적인 교육에서 순수주의적인 인문학 교육 으로 옮겨가는 거죠 .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깨닫게 돼요 .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네. 저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거죠.

혹은, 좀 더 편하게 말하자면,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상황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러한 개념화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자, 바로 그 창의적인 사고 과정이 정신의 생명입니다. 이해 되시죠? 영혼의 생명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외적인 삶은 내면의 개념화가 드러나는 결과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란 정신의 삶, 영혼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독일적인 의미에서 그건 문화인 겁니다. 네.

정신적인 삶은 곧 문화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문화에 포함되는 것은 예술, 종교, 철학입니다. 예술은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개념을 탐구하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개념을 다룰 때 상징을 사용합니다. 철학은 사물의 핵심을 바로 파악하는 것이죠. 개념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새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주목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 새로운 방법을 현상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마음과 정신의 현상학이죠. 현상학은 로고스의 구조를 기술하는 학문입니다.

알 겠어요? 논리학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무엇을 연구하는 걸까요? 로고스 구조를 연구하는 겁니다. 무엇의 로고스 구조요? 사고라는 현상을 연구하는 거죠.

영적인 삶의 현상들. 정신적인 삶 의 현상들. 이해되시죠 ? 이건 서술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방법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논리, 즉 변증법도 얻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 정, 반, 합.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개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개요를 보면 온갖 종류의 삼중항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점, 세 점.

그리고 그 세 점 각각 안에 또 다른 세 점이 있고, 그 세 점 안에 있는 또 다른 세 점 안에 있는 세 점이 또 있고, 그 세 점 안에 또 다른 세 점이 있습니다. 마치 바퀴 속의 바퀴들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세 가지 요점은 첫째, 논리, 둘째, 자연입니다.

셋째, 정신입니다. 이해 되시죠 ? 정신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개념이 의식적으로 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논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논리적 구조일 뿐입니다.

원하신다면, 형태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개념화가 따르는 형태, 그리고 더 나아가 역사가 따르는 형태 말입니다.

반면에 자연에서는 자연과학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객관적인 물질이 있고, 그 물질 위에서 정신은 무의식적 수준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이것을 점진주의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점진주의에서는 정신의 발현에 다양한 정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 1번으로 표시된 모든 것은 정언 명제이고, 2 번으로 표시된 모든 것은 반언 명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3번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은 종합입니다. 좋습니다. 논지는 즉시 파악되는 것, 즉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반정은 매개 단계이고, 합은 이해와 함께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단계입니다. 정, 반, 합.

점점 더 구체화 됩니다 . 즉,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생각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문화에 있습니다. 음, 오버 헤드 프로젝터를 사용 해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논문을 읽는 간단한 연습이 될 것입니다.

너무 작나요? 그렇죠? 조금 뒤로 옮겨 볼게요. 좀 더 조심스럽게 해 드릴까요? 이제 괜찮나요? 좀 더 날카롭게 해 볼게요. 네, 이제 좀 낫네요 .

좋아요, 확대했어야 했는데. 아니, 더 크게 보여줬어야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과정을 구체화하고 싶으니까요.

아니요, 그건 별로…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자, 전통적인 논리 법칙은 동일성의 법칙에서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A는 A입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법칙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그가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본질의 원리를 사고의 필수 원리로 받아들일 때, 그것들은 제안된 주제의 술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주제는 모든 것이며, 모든 것에 대한 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명제들은 보편적인 사고의 법칙으로 규정되어 왔다. 어떤 명제들인가? 존재의 본질, 즉 존재 자체에 관한 원리들을 담고 있는 명제들이다.

존재란 무엇인가? 논리적 개요를 살펴보면, 존재에서 시작해서 본질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존재다. 존재의 본질이다.

그런데 사르트르는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라는 유명한 표현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바로 헤겔에게서 얻은 겁니다. 사르트르는 헤겔의 변증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하면 알게 되겠죠. 자, 그럼 보편적인 사고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중 첫 번째 법칙인 동일성의 원칙은 "모든 것은 자기 자신과 동일하다"입니다.

A는 A와 같다. 반대로, 모순율에 따르면 A는 동시에 A이면서 A가 아닐 수 없다. 이 명제는 참된 사고의 법칙이 아니라 추상적인 이해의 법칙에

불과하다. 자, 내가 그가 전통적인 논리 법칙을 존중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죠. 아시다시피, 사소한 이유는 그가 정적인 현실에 대한 정적인 명제 같은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A가 언제나 A 와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추상적인 개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현실은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의 끊임없는 흐름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무엇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다.

항상 A 와 같다 ' 는 사고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문제 는 내일은 어제와 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다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성의 법칙은 추상적인 이해와는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구체적인 과정의 개념화와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다른 걸로 돌아가 봅시다.

정체성이란 우선 우리가 이전에 존재했던 것의 반복이지만, 그 즉각성이라는 특성을 초월함으로써 변화된 것입니다. 네, 논리의 개요를 살펴보면, 논리적 속성, 즉 긍정하는 속성 안에서, 논리에서 속성은 긍정 또는 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존재에서 시작해서 부정적인 비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알겠죠? 긍정적인 존재에서 부정적인 비존재로, 그리고 그 둘의 합일, 즉 생성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어제의 저와 같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아니라고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란 과거에 존재했던 것의 반복이고, 지금은 '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존재했던 즉각성은 이제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상적인 존재로서의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에 있지 않은, 어떤 이상적인 추상적인 개념인 거죠.

차이를 배제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철학과 그렇지 못한 철학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정체성은 그 본질상 이상적인 개념, 즉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상적인

관념으로서 , 다른 형태의 사고와 정신 활동뿐 아니라 종교적 존재 방식의 고차원적인 범주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그분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 그분과의 동일성, 절대적인 동일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이해 되시 나요? 시간 속에도 그런 것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시간 속에, 역사 속에 그런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존재할까요?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정체성.

마찬가지로, 자기의식으로서의 정체성, 즉 나의 개인적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존 로크를 비롯한 여러 사상가들이 제기했던 개인적 정체성의 문제, 무엇이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가 하는 질문을 기억하시죠 ? 자기의식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을 자연, 특히 짐승과 구별하는 점입니다. 짐승은 결코 자신을 '나', 즉 순수하고 자족적인 통일체로 이해하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니까요. 따라서 사유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와 그 안에서 변형된 특성, 변화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진정한 정체성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체성을 단순한 형태의 추상적 정체성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감정주의자들, 특히 낭만주의자들이 사유에 대해 제기하는 편협함, 경직성 , 무의미함이라는 모든 비난은 사유가 단지 추상적 동일시의 능력으로만 작용한다는 왜곡된 가정에 근거합니다. 형식 논리는 사유의 최고 법칙인 ' A는 A와 같다'를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합니다. 만약 사유가 추상적 동일시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사유가 무익하고 지루하며 하찮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물론 개념과 관념 또한 그 자체로 동일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구별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만 동일합니다.

음, 구체적인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변화의 과정이 없는 추상적인 이상적 정체성이 아니라, 차이를 통해 형성되는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모순율에 대한 그의 설명을 살펴보세요 . 이것이 바로 배중률입니다.

배중률. 배중률이라는 격언을 사용하는 대신, 어떤 것은 A이거나 A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이며, 제3의 대안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추상적인 이해의 격언인 배중률이라는 말 대신, 모든 것은 반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정신의 세계에서도 자연계에서도, 배중률이 주장하는 것처럼 추상적인 양자택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구체적이며, 그 자체 안에 차이와 대립이 있다. 나는 하나의 존재이면서, 다른 존재로 변해간다.

사물의 유한성은 결국 그것들의 현재 모습, 즉 지금의 나와 그것들의 본질적인 모습 사이의 불일치에 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아직 본질적인, 원칙적인 면에서 완전히 제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적 자연에서 자산은 암묵적으로 동시에 기반이 됩니다. 자산은 단지 다른 요소와의 관계에서만 일관성을 유지할 뿐입니다. 자산은 대조 속에서 조용히 지속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언제나 계속됩니다. 그것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순이란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모순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물론, 서로 다른 시점이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A와 A가 아닌 것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순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이다. 모순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에서 유일하게 옳은 것은 모순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모순은 그 자체로 모순됩니다. 반정립에서 합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반대되는 것의 한쪽 측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대립의 직접적인 결과, 즉 모순으로 실현되는 것이 존재의 근거이다. 그 근거는 동일성뿐 아니라, 더 완전한 개념 속의 요소들로 대체된 다양한 것들을 포함한다. 정, 반, 합.

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자신도 전통적인 논리 법칙에 대해 "동시에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따라서 논리 법칙이 변화하는 과정을 독점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논리 법칙은 현실의 구체적인 과정과는 별개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어떤 것의 본질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과정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칭얼거리고 울부짖는,

허약한 아기를 보고 "이것이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상적인 본질에 대한 추상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잠재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 현실화 과정이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 현실적으로, 장차 될 모습, 즉 화장대 사업으로 인해 부정되고 있으며, 이는 부모들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그리고 유아기 와 대조되는 그 매력적인 어린 시절은 어떤 식으로든 초월될 것이며 , 그 과정에서 아이가 유아기였을 때와 어린 시절 이었을 때의 모습을 모순시키면서도 동시에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

자, 모든 것, 모든 유한한 존재는 실제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논리의 첫 번째 변증법적 움직임에서, 범주들, 즉 존재라는 개념은, 만약 그것이 불변성을 의미한다면, 순전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비존재의 과정 또한 순전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에서 출발하여 보다 구체적인 개념인 '존재'로 나아가게 됩니다. 개념이 구체적일수록 더 잘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존재라는 개념이 전체적인 종합 속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명확해질 때 비로소 존재의 가장 완전한 실체, 즉 절대적이고 전지하며 완전히 자유롭고 주권적인 영의 모습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헤겔의 원칙은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그가 모순이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라고 말할 때, 세계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모순적인 명제들이 참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역사의 과정에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걸까요? 윤리가 상대화되는 걸까요? 헤겔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헤겔에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아봐야겠네요. 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겠어요, 스티브?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필요하시면 이걸 떼어 드릴게요.

하지만 스티브, 그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고,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음, 사실 이 논리표에, 어디 있지? 아 , 맞다.

논리학에서는 개념, 주어, 그리고 초기 직접 개념이라는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범주를 설명하는 단계에서 그는 개념이 보편적일 수도 있고, 특수적일 수도 있고, 개별적일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 물론 이는 일반적인 논리학에서도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보편적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특수하다.

거짓말쟁이들이 있다. 개인마다 다르다. 소크라테스도 죽을 운명이다.

알겠습니다. 개인에 대해서요. 지금 그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은 순전히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죠. 플라톤적인 이상향 같은 곳에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실재하는 보편자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그것은 추상적 사고입니다. 반면에, 존 로크와 데카르트 등이 주장했듯이, 원자론적인 방식으로 고립되고 개별적인 개별자들, 즉 다른 어떤 것과도 본질적인 연결성이 없는 루크레투스의 작은 사고의 원자들, 즉 '개별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추상화와 정반대되는 또 다른 추상화입니다.

정반합. 현실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이지도 않고, 그런 의미에서 특수하지도 않다. 당신은 섬이 아니다.

그 누구도 섬이 될 수 없어요. 이해 하시겠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과 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 그러니까 개개인, 그러니까 구체적인 개인이 지금의 스티브가 된 것은 그 사람을 만들어낸 모든 관계, 그리고 스티브로부터 나올 모든 것, 역사를 만들어갈 모든 것들, 이 모든 관계성 때문인 거죠. 바로 그 관계성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알 겠어요? 여러분이 개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개인으로서 하는 일은 보편적인 가능성을 구체화 하는 거예요 . 그리고 보편적인 것은 결국 추상적인 가능성이죠. 이해되시죠 ?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그런 추상적인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고, 현실화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모든 역사는 스티브 죤홀츠에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 점진적으로, 점점 더 가까워 지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해되시죠 ? 물론 나폴레옹 같은 세계사적 인물은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윈스턴 처칠 이나 고르바초프도 마찬가지죠. 아시 겠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곰 네 마리가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만나던 여자와 결혼했더라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떤 시점이 바로 '출현'의 시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치 고정된 시점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출현은 과정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죠 .

음, 아니요. 사실 정확하게 그려본다면, 도표도 추상적인 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가 다른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멈추는 것 없이요.

멈추지 마. 프로세스 변경이야. 스티브, 이게 바로 그가 보편자 이론을 다루는 방식이구나.

보시다시피, 추상적인 보편자, 개념이 존재할까요? 네. 실질적인 보편적 잠재력이 존재할까요? 네. 실질적인 보편자가 존재할까요? 글쎄요, 그것은 개개인 안에서 구체화된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보시다시피, 개인은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이러한 대립되는 개념들을 종합합니다. 보편성을 구체화한다는 것은 특정한 방식으로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보편자 이론은 플라톤적인 보편자는 없지만, 구체화된 보편자는 있다는 것입니다.

구현된 보편자. 어떤 면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되풀이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라이언.

이것을 원자론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라이프니츠가 개념화한 것과 비슷할까요? 그것들은 영향을 받고, 일종의 반사와 같죠. 하지만 창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아시다시피, 17세기의 원자론은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다른 어떤 입자와도 본질적인 관계가 없는 물질 알갱이로 이루어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 모델을 거부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개별적인 힘의 단위를 주장합니다.

창문도 없고, 다른 어떤 것과도 본질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헤겔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과정은 상호의존적이다.

네. 생물학적 과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헤겔의 일원론은 파르메니데스의 일원론과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파르메니데스의 일원론에 몇 가지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파르메니데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 혹은 기본 주제는 진리의 길과 환상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 그런데 헤겔은 개성을 환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변화를 환상이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시죠 ? 원하신다면, 그는 영원성과 변화라는 두 가지 개념을 통합했습니다 . 영원성이란 무엇일까요? 불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태 , 구조. 역사 속에서 작용하는 이성입니다.

개념의 창조적 전개, 절대자에 대한 자기 이해. 네. 과정의 구조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르메니데스가 개인이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의 사회 철학에 이르러서는 헤겔 사상이 보수적인 정치 사상을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적인 정치 사상으로, 국가를 개인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탈리아 파시즘은 일종의 신헤겔주의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파시즘의 철학자는 조반니 젠틸레라는 인물로, 한때 무솔리니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헤겔 철학자였어요. 신헤겔주의자였죠. 하지만 파시즘과 나치즘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분열을 초래합니다. 분열을 초래하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리고 좀 더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에서는 보수적인 정치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헤겔주의는 그곳에서 특정 유형의 정치적 보수주의에 철학적 틀을 제공했죠.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의무를 다하는 것을 강조하는 식입니다.

나중에 영국 철학자 F.H. 브래들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그는 '나의 지위와 그 의무'라는 제목의 윤리학 고전 에세이를 썼습니다. 이 제목을 영국식 억양으로 발음해 보면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힐 겁니다. '나의 지위와 그 의무'.

아시다시피,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유동성이 강한 미국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고려하여 논리의 개요를 살펴보시겠습니까 ?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3 화음을 잘 살펴보세요. 틀림없이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질과 양이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질과 양은 구체적인 척도로 결합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슈툼프는 존재 , 비존재, 그리고 사업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초기 개념은 존재의 근거에 관한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이론적인 개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 그 자체의 정체성, 그것이 바로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죠.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니까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구체적인 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 단순히 실체 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 전체 안에서의 상호작용, 유기체 내 사물들의 상호의존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개념적 틀(begriff)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주제에 대한 개념, 판단, 그리고 삼단논법이 차례로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 논리학의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관념, 판단, 그리고 삼단논법.

물론이죠, 그건 가장 추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 반대는 대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말하자면 대상, 즉 순수한 경험 그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관념이나 개념을 파악 하려면 합리적인 구조와 대상을 결합해야 합니다 .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논리에는 단순히 범주, 즉 사고의 구조만 존재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현실에 적용되는 사고의 구조, 즉 변하지 않는 구조들이죠. 그리고 자연의 영역에 들어가면, 그는 먼저 추상적인 것, 다시 말해 일반화된 추상인 자연의 법칙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 메커니즘이라는 개념에서 그는 인과 관계 메커니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 시간, 운동, 물질, 그리고 인과 관계 메커니즘이라는 첫 번째 개념 아래에는 기계론적 과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론적 과학의 추상성을 넘어 실제적인 힘의 상호작용을 접하게 되면, 이제 화학은 하나의 과학이 됩니다. 화학에서는 기계학처럼 일방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이 존재하며, 상호 인과관계가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생물학적 개념입니다.

유기체, 즉 유기적 모델. 그리고 그는 여기서 목적론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고 봅니다 . 왜냐하면 생물학적 과정은 목적 지향적 이기 때문입니다 .

열매를 맺기 위한 성장. 생물학적 과정. 그래서 그는 다시 목적론적 차원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목적론적인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과 정신에 관한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볼게요. 우리는 항상 양극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5분 정도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주체와 객체, 보편 과 특수 같은 양극성은 존재하죠 .

겉모습과 현실. 이상과 현실. 이러한 양극단은 우리가 극복 해야 할 대립되는 개념 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어떻게 이성이 실재임을 알 수 있을까요? 이해되시 나요? 외관과 실재의 차이가 추상적이라면, 우리는 즉각적인 외관을 어느 정도 실재로 받아들입니다. 외관 , 즉 어떤 것의 첫 번째 모습, 즉각적인 자각은 우리에게 실재에 대한 자각을 제공하지만, 불완전한 개념화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언제나 정도의 문제입니다. 이해도 정도의 문제죠. 어떤 것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면 항상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안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부분을 여전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념화에 대한 평가는 '예', '아니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오'와 같은 식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하죠.